

# 전주서 만나는 전통기와 2000년 역사

한옥마을역사관에서 '한옥에 깃든 아름다움, 기와' 개최... 지역문화자산 활용해 볼거리 제공

한옥이 군락을 이룬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 기와의 아름다움과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전주시와 한옥마을비빔공동체(이사장 이세중)는 지난 6일 전주한옥마을역사관에서 국가 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각인 시키고 관람객들에게 한옥에 깃든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기와 특별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특별전은 전주한옥마을을 주민과 상인 등으로 이뤄진 한옥마을비빔공동체가 한옥마을 주민 중 한옥관련 기와를 소장하고 있는 김성호 교동발전협의회 총무의 협조를 받아 준비한 것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간 한옥마을역사관에서는 △연꽃무늬 와당(백제) △쌍조문 와당(통일신라) △청자 기와(고려) △인면 땅와(조선) 등 기원전 전국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기와와 전통 55점이 전시된다. 전시되는 기와에 표현된 여러 문양들은 학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미적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알려졌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이세중 한옥마을비빔공동체 이사장은 "전주한옥마을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번 기와전시회를 기획하는 과정에



'인면 땅와'



'쌍조문 와당'



'연꽃무늬 와당'

서 보내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태 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한옥마을을 지키는 힘이 주민들에게서 나오듯,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보존·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번 특별전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한옥마을의 지속 발전에도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가 열리는 한옥마을역사관은 '전주한옥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소개하는 곳으로, 매월 평균 1만여 명의 여행객이 찾고 있다. /송효철 기자

## 덕진예술회관, 문화향유 위한 문화공감 마당 마련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은 오는 29일 오후 5시 전통적인 춤사위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태해신카르마프리무용단의 'Flowers in heavens'를 무대에 올린다.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이번 공연은 지역주민의 공연관람 기회 확대와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이성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불러내 한을 들어주고, 달래줌으로써 편안히 저승길로 보내는 '진오귀굿'을 무용으로 재해

석해 인생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을 현대공연예술 곳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공연은 사업취지에 따라 전체 객석의 30% 이상이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해 이뤄지며,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술단운영사업소(281-6652)로 문의하면 된다.

시 예술단운영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작사 공모전 개최... 이달 29일까지 접수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가 지난 2일 부터 오는 29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협회합창 작사 공모전'을 개최한다.

건협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협의 정체성 표현 △건강지킴이로서 건협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건강사회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면 된다.

출품가사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협회가 멜로디를 참고해 작사해야하며, 협회가의 부제와 1절·2절 가사로 구성해 오는 29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건협협회가작사공모전.com)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가사는 협회가 멜로디와의 적합성, 공모 주제에 대한 충실성, 의미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공모전 홈페이지 및

건협 홈페이지(www.kahp.or.kr)에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 등 총 4개 부문에서 13명에게 한국건강관리협회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대상수상 가사는 멜로디와 결합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협회가로 제작될 계획이며, 11. 7. (목) 창립기념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건협협회가작사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관련 문의는 공모전 운영사무국(02-2233-4027)으로 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농민의 애환과 희망 담아

부안예술회관서 소리연극 '삼레, 다시 봄!' 18일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형)은 완주군 교류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소리연극 '삼레, 다시 봄!(연출 지기화)'을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료로 공연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전북도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소리연극 '삼레, 다시 봄!' 공연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과 부안문화예술회관의 교류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부안에서 공연된다.

소리연극 '삼레, 다시 봄!'은 일제강점기 삼례지역의 쌀 수탈 역사를 되짚어보고 농민들의 애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조그만 땅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 대북이 어릴 적 동무이면서 일본인 지주의 농장에서 마름(지주를 대리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노릇을 하는 관수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시작해 엄혹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덕과 순덕의 애뜻한 사랑과 다가올 봄을 위해 희망을 노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문 공연자인 7명의 출연진(김경화·김대일·이용선·정승희·이제학·양혜원·서형화)과 악단 '양상불 어쿠스틱' 단원들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

지기화 연출은 "모든 제작진의 바램이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많은 부안군민이 관람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엄혹했던 쌀 수탈의 역사를 감동적인 서사로 풀어냈다"며 "많은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 향유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전석 무료로 진행하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입장이 가능하며 공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 "포근한 고향의 정취, 국악공연으로 느껴보세요"

12일 저녁 7시 30분,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정읍풍류 락(樂) 공연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 맞아 정읍시립국악단의 상설공연 '정읍풍류 락(樂)'이 오는 12일 밤 7시 30분에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정읍시립국악단은 국악의 고장 정읍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매일 다채로운 상설·기획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정읍의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국악으로 표현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준비해 한기위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립국악단은 '정읍풍류'와 '달하가', '정읍차가'를 창과 춤으로 정읍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정읍사 월명가'와 '정읍노정기' 등 정읍

을 대표하는 소재와 흥이 있는 현대적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신명 나는 국악연주와 화려한 퍼포먼스의 비보이팀(이스트가네스)이 멋진 콜라보 무대를 선보일 예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기위에 흥겹고 신나는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9일과 20일에는 특별기획공연으로 '고운 최치원' 선생을 소재로 한 창작 무용극 '뽕꾸는 피향정'이 예정되어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